

사제 성화의 날
- 교구 사제단 공소 순례

연중 제11주일

제1독서 사무엘기 하권 12, 7ㄱ~10, 13

화답송 시편 32(31), 1~2, 5, 7, 11 (© 5코 참조)

◎ 주님, 제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소서.



1. 행복하여라, 죄를 용서받고 잘못을 씻은 이! 행복하여라, 주님이 허물을 헤아리지 않으시고, 그 영에 거짓이 없는 사람! ◎
2. 제 잘못을 당신께 아뢰며, 제 허물을 감추지 않았나이다. “주님께 저의 죄를 고백하나이다.” 당신은 제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셨나이다. ◎
3. 당신은 저의 피신처, 곤경에서 저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환호로 저를 감싸시나이다. ◎
4. 의인들아,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마음 바른 이들아, 모두 환호하여라. ◎

제2독서 갈라티아서 2, 16, 19~21

복음 환호송 1요한 4, 10

◎ 알렐루야.

하느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어, 당신 아드님을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보내 주셨네. ◎

복음 루카 7, 36~8, 3

영성체송 시편 27(26), 4

주님께 청하는 오직 한 가지, 나 그것을 얻고자 하니, 내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사는 것이라네.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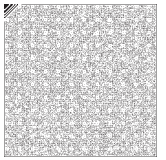
우리 교구는 6월 19일을 연중 제12주일로 지내고, 6월 25일을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로 지냅니다. (담화문 및 자세한 사항은 교구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9일 기도 : 6월 17일(금)~25일(토)

미사 전이나 후에 기도문(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 함께 봉헌

이 주간의 축일

♣ 12일 : 가스파르 베르토니, 나보르, 나자리오, 레오 3세, 바실리데, 베드로, 안토니나, 에스킬, 오누프리오, 오돌포, 올림피오, 요한, 치리노, 테르난



계 만 수
안토니오 신부

진심을 담으면

오늘 복음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만나시는 두 사람을 주목하게 됩니다. 한 명은 유대 사회 안에서 신앙적으로 존경받고 인정받는 바리사이입니다. 또 한 명은 모든 사람에게 죄인으로 손가락질 받고 있는 여인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 안에서 죄인은 율법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바리사이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과 지키지 않는 사람으로 등장한 두 사람 중에서 예수님은 죄인으로 낙인찍힌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예수님은 비록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손가락질 받고 있는 여인이었지만, 그녀의 태도와 몸짓 안에서 당신을 향한 진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주위의 어떤 시선도 눈물로 적신 그녀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내는 것을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실 것이라는 그녀의 손끝에 담긴 진심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남을 의식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봉사를 남이 좀 알아주었으면 좋겠고, 인정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불신과 분노로 투덜거리면서도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은 듯 여러 활동을 하고 신앙에 대해, 하느님에 대해 이야기 합니다.

겉으로 잘 포장된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지언정 오늘 복음의 바리사이처럼 주님의 외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마음 속을 꿰뚫어 보

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질타와 외면을 받더라도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은 진심으로 주님께 다가서는 것임을 오늘 복음은 가르쳐 줍니다.

하느님의 인정을 받는 신앙생활은 진실함에 달려 있습니다. 죄인으로 낙인찍힌 여인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이 여인의 행동 하나하나에 진심이 배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여인의 몸짓과 손끝에 담긴 그녀의 진심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구원으로 이끌었습니다.

하느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와 자세에 진심이 담길 때 우리의 믿음은 하느님의 칭찬을 받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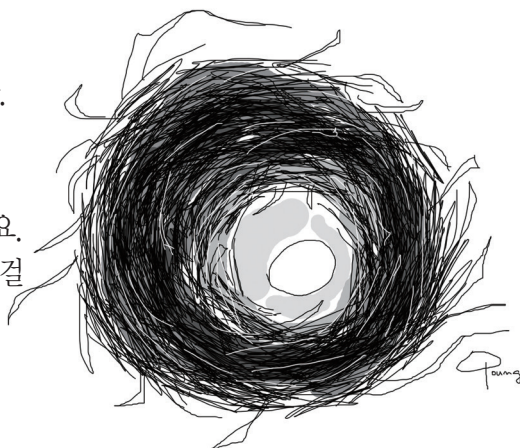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에게서 이 말씀을 듣게 되길 희망합니다.

■ 해양사목

우리들의 밀알

할머닌 암탉이 알을 낳으면 다 꺼내지 않고
하나를 등지에 남겨두었는데
그러면 암탉이 돌아다니다가도
알을 낳을 때가 되면 등지로 왔습니다.
이렇게 등지에 하나 남겨둔 알을
밀알이라고 부르며
찬거리가 없어도 밀알은 먹지 않았지요.
암탉에게만 밀알이 있었던 게 아니라
걸이 즈음에야 깨닫곤 합니다.

글·그림 : 이영 아녜스 수필가



지금 세

BBC부산평화방송
부산 FM 울산 FM 녹산 FM
101.1MHz 94.3MHz 101.5MHz

오늘의 강론 월~토 06:50

6.13(월)~14(화)
계만수 신부(해양사목)

6.15(수)~18(토)
김병희 신부(호계성당 보좌)

문자참여 #2340

◆ 사랑이 있는 세상 ◆

월~목 12:15~14:00

6.14(화) 함께 하는 여정
(기초공동체 초대 토크 코너)

출연 : 하단성당 노인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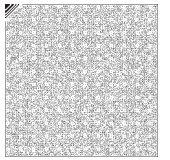
◆ 하느님과 하나되는 하루 ◆

6.17(금) 12:15~14:00

진행 : 이재석 신부
(영성의 집 제2부원장)

출연 : 나혜선 요셉피나

나누는 음식, 화려한 음식



지은주 아델라

이제 6학년인 딸아이에겐 단짝친구가 있다.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저녁시간에 우리집에 놀러 와서 밥을 먹고 가곤 한다. 하루 종일 일하다 돌아와서 가족의 저녁식사 준비만으로도 벅찬 나에게 한 명의 손님이 있다는건 상당히 부담스러웠다. 그래서 고민 끝에 딸아이에게 솔직히 말하고 평일 저녁식사에 친구를 데려오지 않는게 좋겠다고 얘기해야지 결심했다. 하지만 내 결심을 들은 나의 친구는 펄쩍 뛰면서 “네 딸은 지금 사춘기야. 엄마보다 친구가 더 가까울 텐데 엄마가 한 말 그대로 친구에게 옹기고 결국 딸아이도 친구도 상처만 받을 게 뻔하니 절대 하지마.”라는 것이었다.

돌이켜보면 내가 딱 지금의 딸아이 나이였을 때 내게도 항상 붙어 다니던 단짝친구가 있었다. 학교 마치고 내내 붙어 놀다가 늘 우

리 집에서 같이 저녁을 먹곤 했다. 그때마다 부모님은 친구에게 “너 우리 집에서 살자. 우리 딸해라.” 하셨고 친구는 항상 “안돼요. 여기는 딸이 셋이지만 우리 집은 딸이 저 혼자라 안돼요. 딸은 되어드릴 수 없고 대신 매일 놀러 올게요.” 하곤 했다. 부모님은 식사시간에 친구를 데려왔다고 한 번도 불편해하거나 힘든 내색을 보이지 않으셨다. 항상 웃는 얼굴로 맞이하고 맛있는 반찬을 권하곤 하셨다. 당신 자식 네 명도 배불리 먹이기 힘든 시절이라 군식구가 부담스러우셨을 텐데 지금 생각해보니 대단하다. 고작 한 명뿐인 딸이면서 그 딸아이가 친구 몇 번 데려온 게 힘들다고 투덜대는 내가 참으로 부끄러워졌다.

TV만 켜면 쏟아지는 요리 방송, 집만 나서면 보이는 다양한 식당들 속에서 좀 더 맛나고 좋은 음식

만 찾게 되는 요즘이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내 입에 들어갈 좋은 음식만 생각하기보다 일용할 양식이 없는 이웃에 대해 생각하고 나눔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주일에 이주노동자를 위한 미사 준비를 하면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멀리 외국에 나와 힘든 노동일을 하는 그들을 본다. 밥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며, 맛있고 아름다운 음식의 화려한 쇼에 빠져 허우적대는 나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한다.

“하느님 오늘도 제게 일용할 양식과 이웃과 나눌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노동사목 free6403@hanmail.net



QR코드를 스캔하시면 가톨릭부산 페이스북, 트위터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www.facebook.com/catholicbusan
www.twitter.com/catholicbusan



감춤 & 드러냄

조영만 신부(메리놀병원 행정부원장) bapcho@hanmail.net

감춤은 기술이 갈수록 늙는다. 화장도 짙어지고 성형을 해서라도 감춤이다. 가슴이 얼굴을 감춤 채 노래를 부르고, 정치인들은 마음을 감추고 애먼 말을 하지요. 복심은 감추고 눈길만 사로잡는 언색으로 교태를 부리건만, 결국 악의 잔재주만 질척거릴 뿐! 감추려는 모든 시도는 교묘한 짓거리에서 지나지 않음은... 그다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물론, 감춤은 복음과는 거리가 멍니다. 신앙은 기본적으로 ‘드러냄’입니다. 감추어짐이 드러난 사건이 ‘계시’이고, 이 계시를 받아들여 조명된 가르침으로 다시금 계시를 ‘드러내는’ 일이 신앙입니다. 숨기지 않습니다, 복음의 빛 앞에 스스로를 드러내야 신앙인입니다.

첫 번째로 가렸던 이가 ‘아담’ 이요, 스스로를 숨겼던 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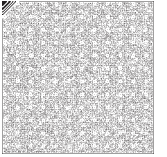
그 아들 ‘카인’ 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감추려 했던 것은 <죄>였지요. 무엇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겠습니까? 감춤은 모든 것은 죄일 뿐입니다. 복음을 통해 ‘숨기라.’고 한 것은 한 가지 뿐입니다. “자신”을 감추라, ‘기도’를 숨기고, ‘단식’을 숨겨라.”(마태 6, 1~18 참조)하였습니다.

감춤 숨기라 명하신 것은 드러내고 과장합니다. 부끄러운 줄을 모릅니다. 그러면서 드러내야 할 것들은 감춤이지요. 자기들의 죄와 잘못을 꾸미고 합리화하고 당당해합니다. 죄와 악을 드러낸 자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감춤 자들이 도리어 큰 소리를 칩니다. 뻔뻔한 세상, 오늘 복음 이야기입니다.

누가 드러내었지요? 누가 감춤 있지요? 그리고 누가 구원을 받았나요?(루카 7, 36~50 참조)

이들 중에 당신은 누구인가요?

가족의 굴레



모두가 잠이 든 시간 에스텔(36세)은 졸음을 쫓아내며 출근 준비를 합니다.

자정부터 오전 9시까지 일을 하고 잠시 쉬다가 낮 12시부터 5시까지, 다시 오후 6시부터 밤 11시까지 에스텔의 하루는 24시간이 모자랄 정도입니다.

에스텔은 몇 년 전 만에 해도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으나 하루아침에 집안의 가장이 되었습니다.

아빠는 암으로 돌아가셨고, 엄마는 아빠의 오랜 간병과 여러 질병으로 일을 할 수 없었으며 동생은 만성 신부전증을 앓고 있어 일정한 직업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집안의 가장이 된 에스텔은 앞이 캄캄했습니다. 생활비 마련도 문제지만 아빠의 밀린 병원비 4천만 원과 동생의 사업실패로 생긴 5억이라는 빚은 도저히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에스텔은 수많은 생각과 고민을 했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열심히 일을 해 차근차근 빚을 갚는 방법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용불량자가 된 자신을 받아 주는 직장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결국 자존심과 부끄러움을 내려놓고 새벽 시장 장사 보조, 호프집, 목욕탕 도우미, 주유소, 우유 배달 등 하루에 네다섯 가지 일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수면 시간이 부족해 육체적으로 힘들어 정말 죽음과 맞먹는 고통이 찾아 왔지만 2년 정도 계속하다 보니 이제는 고생이 일상이 되어 기계처럼 움직입니다.

에스텔은 2년 넘게 가족의 십자가를 혼자 짊어지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무게는 줄지 않고 점점 늘어만 갑니다. 엄마는 허리디스크와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거동이 더욱 불편해졌고 동생은 건강이 악화되어 주 3~4

회 혈액투석을 받아야 합니다. 더군다나 월세를 내지 못해 당장 집을 비워 주어야 할 형편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삶을 포기하거나 가족을 포기하고 도망치려 하겠지만, 에스텔은 오히려 자신이 으스스지더라도 이 악물고 버텨야 가족을 지킬 수 있다는 심정으로, 가족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고통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더욱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에스텔은 희망합니다. 엄마와 동생이 건강을 되찾고 모든 빚을 청산하고 다시금 평범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날이 오도록...

오늘도 힘을 주시길 기도하며 힘든 내일을 준비합니다.

■ 사회사목국(051-516-0815)

도움 주실 분

신협 131-016-582122

부산은행 101-2017-0218-01

예금주 : 천주교 부산교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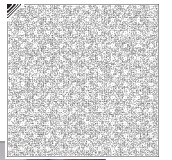


막내며느리가 될 집안은 독실한 개신교입니다. 결혼하면 격주로 번갈아서 교회와 성당을 가자고 언약했는데, 관면 혼배 등 어떻게 해야 가장 현명한 일인지 몰라 문을 두드립니다.

주신 글에서 느껴지는 당혹감을 감추기 어렵습니다. 아드님의 결정이 그릇되다는 걸 정확히 일깨워주는 게 가장 시급하고 가장 현명한 일이나가요. 믿음이란 타협할 수 없는 고귀한 것입니다. 하, 답답한 마음에서 상상을 해봅니다. 한 주일씩 건너 찾은 성당에서 매 주마다 지난 주일미사를 거른 것을 고해하면서 마음이 어떨까요? 또 아내를 위해서 '방문' 하는 개신교회에서는 관람자 이상의 평화를 누릴 수 있을지요? 이러한 혼돈의 상태에서 과연 진정한 사랑의 열매와 믿음의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그들의 언약을 사랑의 결정이라고 오해하지 않기 바랍니다. 이아말로 너도 손해 보지

않고 나도 손해 보지 않겠다는 협상으로 끌어낸 잔꾀일 뿐입니다. 하느님의 뜻에 자기 생각을 섞고 자기 감정을 혼합하고 자기 편익과 형편에 꿰맞추어 해석하는 일은 그릇됩니다. 오히려 각자 자신의 신앙자리를 지키도록 권하는 게 옳겠습니다. 부부가 진심을 다해 갈라진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상대의 믿음생활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것이 훨씬 주님보시기에 좋을 것이라 믿습니다. 서로가 각자의 교회 안에서 더욱 충실한 일꾼이 되도록 격려해 주십시오. 관면 혼배 등 제반 사항은 본당신부님과 의논하시면 잘 도와주실 것입니다.

■ 장재봉 신부(선교사목국장) gajbong@hanmail.net



사제 성화의 날

지난 6월 3일(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마음을 본받는 날인 '예수 성심 대축일' 이자 사제들이 복음 선포의 직무를 더욱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는 '사제 성화의 날' 이었다.

'사제 성화의 날' 을 맞아 우리 교구 사제 250여 명은 공소 순례 행사를 가졌다. 인보성당 인근 내와마을 회관에서 출발하여 '탑곡공소-상선필공소-하선필공소' 까지 도보 순례했으며, 언양성당에서 황철수 주교의 주례로 기념미사를 봉헌했다. 미사 중에 오륜대순 교자성지 담당 전수홍 신부의 병인순교 150주년 기념 특별 강론도 있었다.



복자 이정식, 양재현의 시성과 순교자 김범우의 시복을 위한 도보성지순례

5월 28일(토)
삼랑진역 출발, 김범우 순교성지 도착
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회장 : 도용희 토마스아퀴나스) 주관

부산 바다의 별 레지아, 산하 꾸리아 부단장 교육



5월 29일(일) 푸른나무 교육관
부산 바다의 별 레지아(지도 : 장재봉 신부, 단장 : 김정균 노엘) 주관



교구 울뜨레야

우리는 결코 현세적 야심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 자신이 하시던 일을 계속 하려는 것 그 한 가지뿐입니다. -미사 강론 중에

'손을 뺐어라' (루카 6, 10)라는 주제로 열린 교구 울뜨레야가 지난 6월 6일(월) 주교좌 남천성당에서 꾸르실리스파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다. 묵주기도를 시작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손삼석 주교의 담화, 평신도 담화, 우리의 다짐, 황철수 주교의 주례로 감사미사 봉헌 등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미사 중에 영적예물(양팔 묵주기도, 주모경, 꾸르실리스파의 기도 각 56,000 단)을 봉헌했다.

미사 후에는 남천성당에서 수영천을 거쳐 오륜대순교자성지까지 도보 성지 순례를 했다.

꾸르실료(지도 : 김경욱 신부, 주간 : 이종인 디오니시오) 주관
※꾸르실리스파는 신앙생활 쇄신을 위한 평신도 재교육 운동인 '꾸르실료'(Cursillo)를 수강한 이들이다.

등대회·성경회·성지회 합동 피정



'기초공동체 복음화의 해' 를 지내고 있는 많은 본당의 기초공동체뿐만 아니라, 직종별 단체에서도 영적 결속과 친교를 실천함으로써 기초공동체 복음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5월 28일(토) 등대회(부산시 공무원), 성경회(부산지방경찰청 공무원), 성지회(지하철 공사 직원) 회원 120여 명이 모여, 도보 순례(회동 수원지 일대)를 하고, 부산가톨릭대학 베리타스센터에서 함께하는 시간(생활성가 팀 '주사위' 공연, 홍성민 신부의 특강, 미사 봉헌 등)을 가졌다.

지도 : 공무원 및 경찰사목 담당 최정훈 신부



1지구, 제2회 성가합창제

5월 27일(금) 중앙성당

오순절평화의미를 후원회 미사

부산 : 6.13(월) 11:00 · 남천성당
문의 : 782-0765

빈민사목 후원 미사

· 6.13(월) 10:00 · 문현성당
주례 : 윤희동 신부 / 문의 : 467-1045(빈민사목)

빈민사목 반송 빛둘레 나눔가게

의류, 깨끗한 운동화, 생활용품(가방, 신발, 액세서리)
문의 : 542-0242, 467-1045, 010-2886-6467

울산 파티마의세계사도직 월미사

· 6.13(월) 09:30 목주기도, 15:00 미사
· 우정성당 / 문의 : 010-2428-5785

오른대순교자성지 후원회 미사 및 특강

· 6.16(목) 11:00 · 오른대순교자성지성당
영화 상영 / 문의 : 515-0030

부산 마리아사제운동 다락방기도 및 월미사

· 6.21(화) 14:00 / 지도 : 윤명기 신부
· 가야성당 / 문의 : 010-8879-2376(회장)

'주사위' (생활성가팀) 제2회 찬양 Concert

"지금 그리고 여기에!(hic et nunc)"
· 6.12(일) 16:30 · 서면성당 내 Senda
문의 : 010-3483-0330(부산가톨릭생활성가협회의 소속)

성령봉사회 (055)382-9465 영성의 집

- 젊음이 성령기도회
- 6.13(월) 19:30 전포성당
- 6.16(목) 20:00 울산 북산성당
- 성모님과 함께하는 100단 목주기도
- 6.13(월) 11:00 (안수/중식 제공)
- 수요치유기도회
- 6.15(수) 11:00~16:00 / 중식 제공
- 교구 철야기도회(치유의밤)
- 6.17(금) 23:00~다음날 04:00
- 27기 성령묵상회 심화과정 1단계5차 (상담봉사자교육/1단계주요식)
- 7.2(토) 15:00~3(일) 17:00
- 회비 : 5만원(교재비 5,500원 별도)
- 미사, 필기, 세면도구 지참
- 울산대리구 (052)244-7014 울산 영성의 집
- 울산 철야기도회(찬미의밤)
- 6.16(목) 22:00~02:00 울산 영성의 집
- 강사 : 유승훈 형제(서울대교구)

창세기부터 묵시록까지 단번에 읽는다!!

장재봉 신부와 함께 하는
'성경 통독 피정'
일 시. 8월 1일(월)~9일(화)
장 소. 양산 정하상 바오로 영성관
문 의. 629-8720~2(선교사목국)

교 구

예비신학생 월모임

· 6.12(일) 13:30 · 신학대학
문의 : 629-8760(성소국)

부산교구 공원묘원 하늘공원

미사 : 매주 토요일 11:00 3층 경당(서틀버스 운행)
09:00 남천동 교구청 10:00 온천장 전철역(1번 출구)
10:30 양산 전철역(2번 출구 건너편)
문의 : (055)374-8732~3(관리사무실)

주보 표지사진 공모

주제 : 해당 주일 전례력
응모 자격 : 부산교구 신자 누구나
접수 내용 : 디지털 사진(첨부), 성명, 세례명, 본당, 연락처, 해당 전례력, 성경구절, 사진설명(장소, 일시, 작품사연 등) / 접수 : 이메일(photo@catb.kr)
※ 교구 홈페이지 참조(www.catholicbusan.or.kr)

본 당

수영성당 본당의날 기념 BNK 실내악단 공연

· 6.21(화) 20:00~21:00 · 수영성당 성전
문의 : 761-4901

가야성당 6월 성령 치유 대피정

· 6.14(화) 12:30~17:00 · 가야성당
강사 : 박진성 신부(울산대리구 청소년사목), 이병주 신부(미사, 안수, 고해성사) / 문의 : 010-5511-6593

연산성당 특별 치유 대피정

치유 사목자 마태오 신부 초청
· 6.21(화)~22(수) 09:00~18:00 · 연산성당
강사 : 마태오 신부(인도), 안토니 테클라우스 신부(미국), 테레사수녀(인도) / 준비물 : 미사도구, 도시락
연제구청 옆 E마트 주차가능(안내자 대기)
문의 : 865-1806, 867-1464

기관 · 제 단체 · 위원회

정의평화위원회 아름다운 세상을 여는 미사

· 6.13(월) 19:30 · 가톨릭센터 소극장
주제 : 6.15남북공동선언 16돌, 개성공단 폐쇄와 한반도 정세 / 강사 : 문경환 기자(NK투데이 기획실장)
문의 : 465-9508 / 무료 강의와 미사

교정사목회 후원회 미사

부산 : 6.14(화) 14:00 가톨릭센터 경당
울산 : 6.25(토) 10:00 옥동성당
문의 : 441-7729



우리성당카드 여러분의 포인트를 기부하세요!

적립된 포인트는 우리 교구 사회사목국(로사리오카리타스)에 **사회복지기금**으로 자동기부됩니다! (기부금소득공제 가능)

다양한 할인혜택

(주유, 영화관, 커피전문점, 놀이공원, 패밀리레스토랑 등)

국내 모든 가맹점에서 **0.5% 적립**
특별적립 대상업종에서 **1.5% 적립**
6개월마다 보너스 **15,000점 적립**
(6개월간 3백만원 이상 이용 시)

신청 안내 : 부산교구 사회사목국, 부산교구 관내 우리은행 지점

<p>다양한 예물과 시계 각종 보석 도매, 목주반지 전문</p> <h3>서울공예사</h3> <p>범일동 역 12번 출구 중앙 귀금속 115호 (주.아)631-5006, 631-5007 황인환(가롤로) · 김경자(모니카)</p>	<h3>분도목공소</h3> <p>제대, 강론대, 장패틀 등 각종 성구 제작</p> <p>www.bundwood.kr 공 장 : 262-1959 대표번호 : 1544-2391</p>	<p>since 1977 보이지 않는 보청기 디지털보청기 전문 취급</p> <h3>한독보청기</h3> <p>김무남(아우구스티노) 632-2248, 2360</p>	<p>물 새는 곳을 정확히 찾아, 보수</p> <h3>삼일누수탐지공사</h3> <p>수도배관, 보일러배관 등 각종 누수 인터넷 검색어 : 삼일누수</p> <p>전화 : 202-3011 이 국 영(베드로)</p>	<p>포장이사 전문업체</p> <h3>성신익스프레스</h3> <p>(영구크린 부산지점) 이사와 청소를 한 번에 해결해드립니다</p> <p>242-4222, 1522-4324 www.ss0924.com</p>
<h3>동국자동차매매상사</h3> <p>신차, 중고차, 매매, 수출, 할부, 패차</p> <p>상담. 010-3599-6420 현 종 삼(요셉) 부산 1단지 관여 제14호</p>	<h3>금석 · 제이스</h3> <p>귀금속 도소매 각종 보석, 다양한 예물과 패션제품, 커플링</p> <p>목주반지 전문 / 박정희(요셉), 손혜경(요세파) 644-3630~1, 010-3558-3630 010-8661-3631 현대백화점 맞은편 귀금속 테마거리 중간 단독 매장</p>	<p>임플란트, 심미보철, 교정치료</p> <h3>성모치과</h3> <p>원장. 송 치 원(라우렌시오) 633-8228, 634-8228 지하철 1호선 범일동역 1번출구 50m</p>	<h3>거 제 주 단</h3> <p>주단, 포목, 혼수, 예단 도소매 박대수(야고보), 최복순(테레사)</p> <p>점포: 632-0696, 집: 416-9168 후대폰: 010-9331-6633 진시장 1층 주단부 318호 1층 8호문 안쪽 화장실 옆</p>	<h3>안평노인건강센터</h3> <p>치매 · 중풍 돌봄시설 장기요양기관</p> <h2>518-6838</h2>

부산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2016학년도 여름학기 전문능력개발과정 수강생 모집
 모집과정 : 리본아트코디네이터, 다도, 미술심리상담사(1급/2급), 색채심리상담사(1급/2급), 웨이트트레이닝과 보디빌딩, 전례와 리본예술
문화·교양과정 수강생 모집
 모집과정 : 캘리그래피, Yoga-행복한 힐링타임
 접수 : 6.1(수)~30(목)
 개강 : 7.4(월)부터 과정별 해당요일
 문의 : 510-0952~3, edu.cup.ac.kr

가톨릭심리상담소 행복나눔의전화 : 463-7866
 상담 : 월~금 10:00~16:30(중주 대청동)
 내방상담 : 신자, 비신자 및 타종교인(전화 예약)
 청소년 진로 및 심리상담 : 토요일 10:00~16:30
 상담사 : 조옥진 신부(상담심리학 박사) 및 전문상담사

교육·모집·기타

사랑의성모수녀회BPS 가족 미사
 · 6.13(월) 14:00 · 수녀원
 문의 : 756-3266, 010-5648-3266

한국외방선교수녀회 후원회 미사
 · 6.14(화) 10:00 · 이기대성당
 · 6.17(금) 10:00 · 사직대건성당
 6.13(월) 미사 없음-6.20(월)로 변경
 문의 : 582-1774, 010-9081-1743

예수고난회 일일피정
 · 6.13(월) 14:00~17:00 · 중앙성당 소성전
 주제 : 나의 수도생활 / 강사 : 신동호 신부
 문의 : (062)571-5004, 010-3597-7560

예수회 무료 월례특강 및 미사
 · 6.17(금) 14:00~17:00 · 남침성당 소성전
 주제 : 율법에 대한 또 하나의 인식
 강사 : 하태수 신부 / 문의 : 010-3245-7900

성분도치과병원 개원 50주년 기념 문화의 밤
 · 6.22(수) 18:30 · 성분도 은혜의 집(치과병원 2층)
 주제 : 시, 소통의 길 / 강사 : 함민복 시인
 문의 : 752-9023(성분도치과병원 총무과)
 ※ 장소 준비관계로 미리 신청 바랍니다

비아회 원로 사제를 위한 미사
 · 6.13(월) 10:00 · 오룬대순교자성지성당
 주례 : 박유식 신부 / 문의 : (055)367-2214

렉시오디비나와 향심기도 하루피정
 · 6.26(일) 10:30~16:00 · 새 예루살렘 공동체
 문의 : (052)239-1249, 010-5488-1239
 6.22(수)까지 신청 / 15:00 주일미사(왕신부 주례)

살레시오 무료특강
 · 6.28(화) 10:00~11:00 / 접수 : 6.25(토)까지
 주제 : "산만한 우리아이, 문제가 있을까요?"
 대상 : 관심있는 누구나, 독서미디어교실 학부모
 문의 : 622-2431, 3127(살레시오영성의집, 남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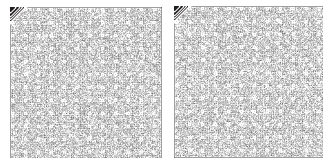
힌돌실버타운 주방 가족(자매) 구함
 문의 : 758-6231, r-silver@hanmail.net

힌돌실버타운 신·중층 입주자 모집
 신축 20평형 47세대, 중층 17평형~24평형 30세대
 성당, 휘트니스센터, 사우나, 물리치료실, 각종 프로그램실, 부산성모병원 및 메리놀병원 연계
 · 부산 수영구 연수로 260번길 53(망미동)
 대상 :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고 심신건강한 만 60세 이상 어르신 / 문의 : 758-6231

서울삼삼산 2016년 '회복' 성령대회(무료)
 · 6.16(목)~17(금) 09:00~18:00
 · 올림픽랜드볼경기장(5호선 올림픽공원역 3번출구)
 강사 : 조구만 주교(미사), 김용렬, 황창연, 이창진 신부, 인도 마테오 신부, 안토니오 신부, 테레사 수녀
 문의 : (02)874-6346, 010-3310-8826

젊은이 침묵 피정
 · 7.2(토) 16:00~3(일) 17:00
 · 작은자매관상선교수녀원 본원(진주)
 주제 : 하느님 아버지처럼 자비로이(루카 6, 36)
 문의 : 010-5805-7665, (055)752-7665

수도회 성소 모임 및 피정	일시	장소	문의
천주성요한외교수도회	6.18(토) 14:00	서울 개화동 수도원	010-3800-1579
티업은신마리아성심수녀회	6.19(일) 13:30	본원	010-2835-4858
성빈센트드블자비수녀회	6.19(일) 14:00	수원 본원	010-8833-8107
성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6.25(토) 15:00	부산 명상의 집	010-8618-6611
살레시오회	7.23(토)~24(일)	태안 살레시오회 피정센터	010-9487-9182



시간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입니다.

성빈센트 젊은이 성경 통독 피정
 · 6.24(금) 20:00~25(토) 13:00 · 수원 본원
 대상 : 만 35세 미만 미혼 여성 / 회비 : 1만원(선착순)
 내용 : 아모스 외 4 / 문의 : 010-8833-8107

투스평교배네딕도수녀회 베네딕도 살이 피정
 · 6.29(수)~7.3(일) · 대구 수녀원
 문의 : 010-8519-3431, 010-9347-3431

예수회 성소식별피정
 · 7.1(금)~3(일) / 문의 : 010-6245-1608
 신청 : vocation, jesuits, kr(온라인 접수)

성심수녀회 예수마음배움터 프로그램
 문의 : (031)946-2337~8, www.jesumaum.org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 7.1~3, 8.5~7 시작 17:30
 7.4~12, 7.15~19, 8.8~12, 8.15~23 시작 14:00
 이나시오 영성수련 : 7.1~3 시작 17:30
 내적여정 에니어그램(기본 1, 2과정)
 : 7.1~3 시작 15:00

대안교육 산자연중학교 입학설명회
 · 7.2(토) 14:00 / 대상 : 본교에 관심 있는 학부모
 문의 : (054)338-0530, www.sanjayeon.ms.kr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젊은이선교체험(피지)
 · 7.26(화)~8.5(금) / 문의 : (02)924-3048
 대상 : 고1~대학생, 청년 남녀
 경비 : 200만원(유류할증료 및 세금 포함)

발칸 및 크로아티아 순례
 · 9.24(토)~10.7(금) / 모집인원 : 자매 한 분
 문의 : 010-7124-0721(이시찬 신부)

인간존중·생명사랑 정신을 구현하는
부산가톨릭대학교 학과 안내 ㉓
창조경제시대의 IT 전문인력 양성의 요람인
소프트웨어학과
<http://www.cup.ac.kr>

메리놀병원
쾌유 기원 카드 전달 서비스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쾌유 카드 보내기
 ▶ www.maryknoll.co.kr

가톨릭센터 복음문화나눔 행복한 세상
▶ 무료영화상영 가톨릭센터를 사랑하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지상의 별처럼 일시. 6/20(월) 19:00
 장소. 가톨릭센터 소극장 (예술진흥관 C&C)
 내용 : 날벼락이 아니어도, 매년 가장 특별한 Only 10니까!
 18:00 후원 감사 미사(센터 경당) / 다과 / 영화 관람
 무료 / 단체 문의 : 462-1870 / www.bccenter.or.kr

'육에 티'를 찾습니다! 주보에서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우편이나 팩스(629-8756), 이메일로 알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 국가 공인 1급 조율사 직영점 -
야마하중고피아노직수입
삼익영창그랜드피아노판매
 중고 피아노 사고 팝니다
 조태상(클라로) · 이정미(노엘라)
851-4545, 010-3597-4641

선비목집
 보쌈정식 개시(1인분 17,000 2인 이상)
 보쌈 수육, 명태회무침, 메밀전병
 연어샐러드, 코다리 강정, 목살러드
 식사는 목재, 명계 비빔밥, 새끼 비빔밥 중 택1
 ※ 목 요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553-3929 동래 메가마트 정문 옆 주차원

동래로타리
독일보청기
 교우특별할인
 방(아브라함) 송(아가다)
555-5777
 지하철수안역 7번 출구 앞(국민은행 옆)

입소 상담
 힌돌 실버타운 **758-6231**
 힌돌 요양센터 **751-0561**
 로사사회봉사회 www.rosa.or.kr
 대표이사 맹진학(라파엘) 신부

라이프치과의원
 치의학 박사, 최 계 훈(바오로)
 치의학 박사, 박 찬 아(요한 급구)
원데이 임플란트
치아 살리기 치료
 해운대 31번 종점 맞은편
743-3334

바른성모안과
 망막(황반변성, 당뇨망막증, 망막혈관폐쇄), 백내장
 원 장. 최 베드로(한국망막학회 정회원)
242-0075
 서구정 옆 바른병원 3층

동래참사랑재활요양병원
광안참사랑재활요양병원
 뇌졸중, 통증 재활 치료, 척추 손상
 치매, 중풍, 간병 치료, 양·한방 협진
 동래 : 553-0050 추홍수(야고보)
 광안 : 751-1515 김명희(야네스)

라파엘여행사
 9/19 성모님발원지(13일 389만원)
 9/22 이스라엘(9일 359만원)
 10/17 산티아고 도보순례(14일 389만원)
(02)778-8565

박숙현
정신건강의학과의원
 공황장애, 우울장애, 수면장애, 치매, 햇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박숙현 (에스텔)의학박사
611-3339
 남천 지하철역 3번 출구, 대남빌딩 5층

내일N성형외과
 눈, 코, 유폴, 가슴, 지방이식, 보톡스, 필러, 레이저
 최수중(루카)
 전 부산대학교병원 성형외과 과장 / 교수
 상담 및 예약 **231-8088**
 부산시 서구정 옆 바른병원 2층